

기상사랑

www.kma.go.kr Vol.380

2013. February **2**

정책클로즈업

숫자로 본 '2013 기상청 살림살이'

열린마당

두 얼굴의 국가기상위성센터

포커스

세계기상기구 고위직 진출!

2030 솔로탈출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의 비극





「겨울목장」 정현숙님 작품

2012년 기상사진전 입선작

초겨울 첫 눈을 맞은 양떼들의 모습입니다.

February **2**



Contents

KMA Special Issue

- 풍경이 있는 날씨촌 잊지 못할 겨울도시 '태백' · 02
- 정책클로즈업 숫자로 본 '2013 기상청 살림살이' · 04
 - '약방의 감초' 기상기후 서비스가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06
- 날씨 에세이 날씨로 알아보는 '연애 성공비법' · 08
 -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 10
 - Nail의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 12

KMA About

- 열린마당 두 얼굴의 국가기상위성센터 · 14
 - 유럽과 아시아의 보석 '타키'에 빠지다 · 16
 - 기상청 시사회로 '더 임파서블'을 보다 · 18
 - 131이 전하는 인생이야기 · 20
- 포커스 세계기상기구 고위직 진출! · 22
 - 통섭과 융합의 산실 '행정자료실' · 24
- 2030 슬로탈출 밸런타인데이 초콜릿의 비극 · 26

KMA Hope

- 신간도서 기후변화 이해로 함께 소통하다 · 28
- 날씨만화 생활기상정보 개선 · 29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잊지 못할 겨울도시 '태백'



박수진 / 동해기상대

겨울도시 하면 태백, 겨울산 하면 태백산, 겨울축제 하면 바로 태백산 눈축제라 할 수 있다. 태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로, 평균 해발이 700m가 넘어 '하늘 다음'으로 높은 곳이다. 태백산은 '크게 밝은 뒀'이며 '한밭달'이라고도 부른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태양이며, 태양은 밝은 빛을 의미하니 천신자손(天神子孫)인 우리민족을 밝은 민족(白民)이라 하였고, 하늘에 제사지내는 산을 밝은 산이라 하였다. 밝은 산[白山]에 제사지내는 풍습을 가진 우리민족을 배달겨레라 했으며, 태백산은 많은 밝은 산 가운데 '가장 큰 밝은 산'이란 뜻이다.



① 태백산 겨울 풍경 ② 태백산 천제단 ③ 태백산 눈꽃

겨울 설경이 눈부신 태백산!

겨울철 산행은 추운날씨와 눈 때문에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태백산은 이름에서 오는 무게와는 달리 산을 찾는 이가 남녀노소,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또한, 태백은 적설량이 많고 기온이 낮아 눈이 잘 녹지 않기에 아름다운 눈꽃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산을 오르는 코스는 유일사 코스가 4km 정도 되는 거리로 두 시간 정도가 소요돼 적당하다. 태백산의 진면목을 모두 감상할 수 있으며, 나뭇가지마다 활짝 핀 눈꽃, 상고대가 환상적이다. 유일사 매표소를 지나면 한전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 있다. 땅에 곳곳이 박혀 있는 모습이 대단하다.

이 군락지를 지나면 '유일사 가는 길'을 알리는 이정표가 나오는데, 오른쪽은 경사가 심하고 왼쪽은 완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왼쪽 길로 줄지어 산을 오른다. 40분 정도 오르다 보면 나무 하나를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주목군락지에 도착한 것이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주목은 양상한 가지만 남긴 채 옷을 몽땅 벗어버리고 태백산의 칼바람을 맞으며 의연하게 서있는 그 모

습이 참 대견하다. 주목의 신비로움은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밥나무와 닮았다.

주목군락지부터 천제단까지는 평평한 언덕처럼 완만한 코스다. 태백산 정상에는 돌로 성을 쌓은 듯한 ‘ㄷ’자 모양의 천제단이 있는데, 매년 개천절에 이곳에서 단군제를 지낸다고 한다. 천제단은 손꼽히는 해돋이 명소로 장관을 연출하여, 해마다 1월 1일이면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재계 인사들, 기업들은 신년 시무식이나 직원 단합 등반 등) 평전을 가득 채운다. 천제단에서 당골로 내려가는 길 역시 평탄하며, 1시간 30분가량을 내려오면 아쉬운 태백산의 산행이 끝난다.

석탄과 자연 그리고 인간 ‘태백석탄박물관’

당골 매표소로 하산하는 길에 태백석탄박물관을 잠시 둘러보면 좋다. 한때 태백은 64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여 전국 석탄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면서 ‘전국 제1의 광도’로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양 최대의 태백석탄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검은 진주’라 불리는 석탄이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석탄의 변천사와 역할 등 역사적 사실을 한 곳에 모아 탄광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명소이다.

‘석탄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석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역사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마련되어 있다. 1, 2전시실은 지질관과 석탄의 생성에 대한 전시물로, 3~5전시실은 채굴과 광산 안전에 대한 전시물로, 6전시실은 지금은 볼 수 없는 탄광촌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전시물로 꾸며놓았다. 무엇보다 체험경도관이 있는 8전시실이 가장 인기가 많다.

전시실을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탄광 갱도를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다. 또 갱도에서 작업하는 광부들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다. 광부들의 채굴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에너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기회가 될 것이다. 2월말까지 운영하는 석탄박물관 옆에 위치한 태백산 눈썰매장도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태백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눈 이야기 ‘태백산 눈축제’

태백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눈, 사랑 그리고 환희’를 주제로 태백산 도립공원, 황지연못 등 태백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눈축제에 맞춰 여행일정을 잡는 것이다. 나 또한 제20회 태백산 눈축제 기간(2013.1.25~2.3)에 국내 최고의 눈 조각가들이 제작한 웅장하고 섬세한 눈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라이언 킹, 로보카 폴리 등의 조각상도 만나봤으며, 개썰매와 스노우모빌 썰매도 탈 수 있었다. 또한, 태백 시내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미션! 태백을 누벼라’도 즐거움을 더했다.

하얀 겨울의 잊지 못할 추억과 2013년 태백산의 성스러운 정기를 받고 싶다면, 발길을 태백으로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① 태백석탄박물관
② 체험갱도관
③ 태백산 눈축제
④ 태백산 눈축제

숫자로 본 '2013 기상청 살림살이'



정지현 / 기획재정담당관실

기상청은 위험기상 예측능력 제고, 기상·기후 정보 자원화 등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012~2016)' 실천과 미래 기후변화 대응사업 적극 발굴, 기상정책·예산이 연계된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2013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확정된 기상청 예산의 특별한 숫자들을 모아 '2013년 살림살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3년도 기상청 세출예산 3188

예산 규모는 3,188억 원으로 전년대비 95억 원(3.1%) 이 증액되었다. 1,325명의 직원 인건비는 747억 원으로 전년대비 0.2%, 기관 운영비(기본경비)는 181억으로 6.4% 증액되었다. 특히, 기상관측·예보체계 개선 등에 쓰이는 주요사업비가 2,260억 원으로 전년대비 241억 원, 11.9%가 증액되어 세출예산 증액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쳤다.

주요사업비 2260

일반, R&D, 정보화사업을 통틀어 2,260억 원이 편성되었다. 우선 선진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기상인프라 확보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위험기상 조기 탐지를 위한 신속한 목표관측과 기후변화 감시, 기상조절에 활용하기 위해 2015년 도입예정인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운영」이 전년에 비해 33억 원 증액된 5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한반도 유출입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과학적 관측 자료 확보를 위한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R&D)」사업이 올해 울릉도 기후변화감시소 완공을 위해 32억 원 편성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 정지궤도 통신해양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의 후속위성 개

발 사업에 전년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이 편성되었다.

지진, 태풍 등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한 한국 구현을 위해 「지진 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사업에 98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지진통보시간의 획기적인 단축기술 개발 및 고밀도·고품질의 지진관측 기반조성을 통한 지진조기경보 발령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지진조기경보체계를 10초 이내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림 맞춤형 스마트 기상서비스 구현을 위한 공통기반 기술개발, 기상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R&D)」사업이 전년대비 25억 원 증액된 55억 원, 집중호우, 낙뢰, 황사, 태풍 등 예측성 향상을 위한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R&D)」사업이 전년대비 6억 원이 증액된 52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상·기후 정보 자원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산업 육성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수요 충족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장기예보서비스 체계 구축」사업이 2012년 10억 원에서 2013년도에는 14억 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고, 「기상산업 활성화」사업에 전년대비 8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R&D)」사업이 2012년 33억 원에서 2013년엔 35억 원으로 2억 원 더 편성되었다.

기상청 청·관사 신축예산 302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기상청의 청·관사 신축예산은 건물의 노후화와 관측환경 변화에 따른 이전소요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올해에는 제주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대구기상대, 정읍기상대 청·관사가, 철원기상대는 관사가 완공되고, 대구기상대와 함께 신축되는 대구기상체험관 신축이 시작된다. 울산기상대, 천안기상대 청·관사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비가 반영되었다. 전국에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기상청의 75여개 기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기상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년 신규 사업 수 5

2013년에 새로 추진하는 R&D사업으로는 범부처적(기상청,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으로 도입예정인 이종편파레이더에 대한 공동 활용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범부처 융합 이종편파레이더 활용기술개발(R&D)」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다. 방위사업청,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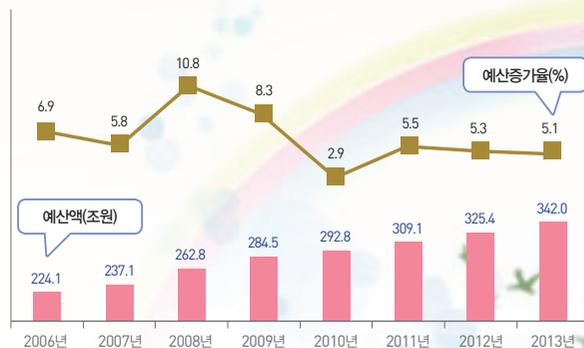
식경제부와 함께 공동 개발하는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 비행체에 탑재할 기상관측센서 개발과 성층권 감시·예측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다.

정보화사업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항공 위험기상 조기탐지 및 예측기술을 확보하고,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선진 항공기상예보 서비스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사업에 올해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서울소재 국립기상연구소와 기상통신소의 시설장비 이전과 직원 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각각 2.4억 원과 2억3천9백만 원씩 편성되었다.

정부 총지출 대비 기상청 예산비율 0.1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포함한 기상청 예산은 3,490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 342조원의 0.1%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0.1%의 비중이지만,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기상청의 존재목적은 100% 달성하고, 국민들에게 100% 신뢰받는 기상청이 되기 위해, 「국민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선진 기상기후 서비스」 실현을 위해 2013년도 열심히 달려 나갈 것이다.

기상청-정부 예산 추이('06~'13)



* 기상청 예산은 '12년부터 기상청 청·관사 신축관련 국유재산관리기금 포함
 ** '09년 정부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301.8조원

‘약방의 감초’ 기상기후 서비스가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기상선진화담당관실

국가경제, 산업,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날씨와 기후예측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상청은 전통적인 예보 중심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와 융합되는 의사결정 지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상기후 기반 「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소개하여, 이를 구축하기 위해 기상청이 전략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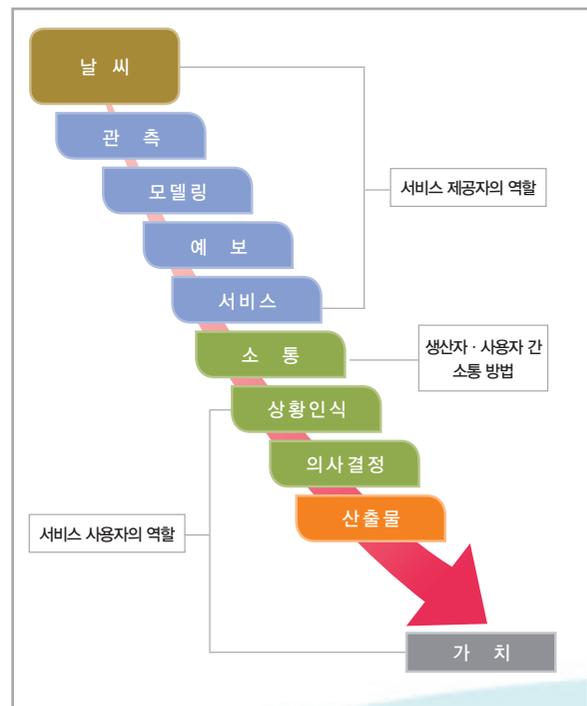
‘약방의 감초’ 기상기후 서비스

「2012 기상정보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o’ 항공은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비행계획을 세우고 항공기를 운항하여, 위험기상에 따른 회항률을 1만 편당 7~11회에서 4~6회로 줄이고, 연간 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그리고 은상을 받은 ‘b’ 김밥전문점은 기상청 홈페이지, 131 콜센터, 기상방송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김밥 단체예약 취소를 줄이고 날씨에 따른 판매량을 예측하고 양을 조절해 매출을 3배 늘렸고, 재료비는 30% 줄였다. 이렇듯 알게 모르게 기상기후 서비스가 사회 곳곳에서 사용되어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약 1/3, 우리나라의 경우엔 약 1/2이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할수록 날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상기후 서비스는 날씨에 영향을 받는 사회 곳곳의 의사결정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활용될 것이다.

한 서비스를 생산한다. 사용자는 생산된 서비스를 기상청과 소통하여 얻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의사결정은 다양한 산출물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로 변환된다.

과학적 기상기후 정보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로 창출되는 과정

미국의 경제학자인 Lazo 박사는 날씨가 사회경제적 가치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과 같이 설명한다. 기상청은 날씨를 관측하고 예측하여 일기예보 등 다양



기상서비스의 전달 및 활용과정

사용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기상기후 서비스 속의 전문지식

기상기후 서비스에는 다양한 과학적 정보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상기후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기상기후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상기후 서비스를 의사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상청은 정확한 기상기후 정보를 생산하여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왔다. 응용분야와 융합하여 각 분야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협업하는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의사결정이 사용자의 몫으로만 남는다면, 기상기후 정보가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기상기후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역할

기상기후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사용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기상기후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농업분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벼 도열병 예측 서비스의 예를 살펴보자. 벼 도열병의 경우, 습도, 강수, 기온 등이 병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 벼 도열병에 대응해야 하는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들이 단독으로 기상정보를 도열병 예측에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상과 농업분야의 학계와 국가농림기상센터, 국립기상연구소가 협력하여 기상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벼 도열병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상기후 서비스 '프로슈머' 만들기

이러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산자인 기상분야와 사용자인 응용분야의 융합이 필요하다. 기상기후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생산자와 사용자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기상기후 서비스 사용자를 프로슈머(Prosumer)로 만들어야 한다. 프로슈머는 생산자(프로듀서, Producer)와 사용자(컨슈머, Consumer)

의 합성어로 생산에 영향을 주고 참여하는 사용자를 의미한다. 적극적인 사용자, 생산자를 움직이는 사용자를 만들고 그 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는 사용자의 활동을 키워야 하며,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 융합적인 협업 활동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기상분야와 응용분야와의 소통

기상분야와 응용분야를 융합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소통이다. 기상기후분야 전문가 집단인 기상청이 응용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하여 그들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응용분야 전문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기상청이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상기후와 응용분야를 연결하는 융합전문가를 통해 소통할 수 있다. 일례로, 벼 도열병 예측시스템은 학계와 연구소 등 융합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소통을 통하여 구축되었다. 이렇게 소통을 통하여 사용자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생산자와 개발자의 기술적 요구를 서로 공유하고 이해한다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기상기후 서비스의 최종적 형태는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 지원이다. 기상기후 분야와 각 응용분야와의 협력과 융합을 통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기상기후자료는 보다 많은 사회경제적인 혜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상선진화추진단에서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국내현황, 개념,
구축방법, 분야별 사례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날씨로 알아보는

‘연애 성공비법’



석경로 / 결혼정보 행복출발

“앗! 비 오네. 일기예보 보고 나올 걸~”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번은 날씨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꼭 체크하지 않은 날에 비를 맞게 되는 머피의 법칙을 곤잘 만나게 된다. 이렇게 때론 우리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는 날씨지만, 우리의 삶에 무척이나 밀접한 게 바로 날씨이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날씨인데, 남녀의 만남과 연애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날씨와 관련된 몇 가지 연애 기술만 알아도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개팅 자리에서 날씨는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데, 눈이나 비가 올 때 만난 남녀는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날씨로 인해 약속시간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옷차림도 좀 더 우중충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습도가 높아 감성적인 판단을 해 쉽게 결정을 내리기도 해서다.

누구에게나 첫인상은 중요한데 눈과 비가 오는 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욱이 궂은 날씨를 무릅쓰고 나왔는데 자신이 찾던 ‘백마 탄 왕자’나 ‘숲속의 공주’가 아니면, 소위 말해 ‘팡’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첫인상을 전하기 위해선 가급적 비오는 날의 첫 만남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의외로 더운 날씨에서의 소개팅은 성공률이 높아진다. 보통 볼쾌지수가 높은 여름엔 당연히 잘 안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때문에 의외로 여름에 연결된 커플들이 많다. 물론 가벼운 옷차림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지만, 노출만으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니 영향은 미미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겨울은 어떨까? 첫눈, 크리스마스, 연말 등 로맨틱한 요소가 많은 겨울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만나기 전부터 상대에 대한 환상을 갖기 마련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금세 포기해버리기도 해 그만큼 소개팅 성공률이 낮아지고 커플이 되더라도 연애기간은 짧아진다.

대부분의 연애전문가나 커플매니저들은 여름에 만나 연인으로 발전하고 겨울을 보낸다면, 결혼으로 가기 쉽다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낭만적인 겨울을 혼자 보내기 싫은 솔로들은 겨울에 짝을 찾아 서두르는데, 그만큼 연인을 얻기는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솔로들이 겨울에 더 외로워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주말에도 좋다고 하는데... 약속 있으세요?”

우리가 늘 보았던 연애의 패턴을 보면, 이렇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데이트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날씨 얘기는 많이 들 한다. 주당들은 비가 오니까 한잔하자 하고, 날씨가 무지 좋으니까 또 한잔, 흐린 날씨엔 추억과 함께 한잔... 또 어떤 이들은 '날씨 때문에 차가 막혀서 늦었다'는 이유를 대기도 한다. 이런 상황과 비교한다면 날씨를 봐가며 데이트를 정하는 이들 역시 유지하고 뻥해 보일 수 있지만, 남녀 간에 날씨란 그야말로 '설렘의 시작'을 알려주는 찬란한 존재라 할 수 있다.

날씨는 연애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선천적으로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날씨에 따른 심리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남자는 흐린 날씨에 프리포즈를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는 소개팅의 성공률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무방비상태에서 고백을 받는 것과 만반의 준비와 기대를 하고 만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는 봄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충동을 느끼고, 겨울에는 보호 받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역시 날씨에 따른 심리변화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무지막지하게 계획을 짜고 순서대로 이어나가는 데이트보단, 단순히 날씨에 따른 갑작스러운 이벤트에 더 감동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은 연애 관련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식수준이기에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연애를 잘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날씨는 또한 연애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면서 우리에게 추억을 선사하기도 한다. 누구나 첫눈에 얽힌 추억 한가지씩은 갖고 있고, 여름날 시원하게 보낸 휴가의 추억도 있으며, 연인과 추위를 뚫고 걸었던 춥지만 행복했던 기억도 있을 테니 말이다. 이 모든 것이 날씨가 아니면 소중한 추억이 되지 못하고 그저 잊혀져버린 기억이 됐을 수도 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날씨 얘기로 인연을 맺으려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진부한 이야기일지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누구에게나 부담 없고 공통적인 주제가 바로 날씨다 보니, 우리에게 이런 얘기가 없었다면 대화의 벽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이참에 본 지 오래된 지인들에게 날씨얘기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훈훈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감기 조심하고, 맑은 날에 한번 보자”라는 가벼운 인사를 전하면서,



사랑을 고백하세요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이설아 / KBS 기상캐스터

지난 한 해는 한파, 폭염, 태풍까지 그야말로 날씨 가 극성을 부렸다. 특히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14호 '덴빈', 15호 '블라벤', 16호 '산바' 이렇게 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연달아 상륙하면서 기상캐스터로서도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낸 것 같다. 이런 날씨 탓에 분주한 여름을 보내고 뒤늦은 휴가를 떠났다.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안개의 나라', '신사의 나라' 영국 '런던'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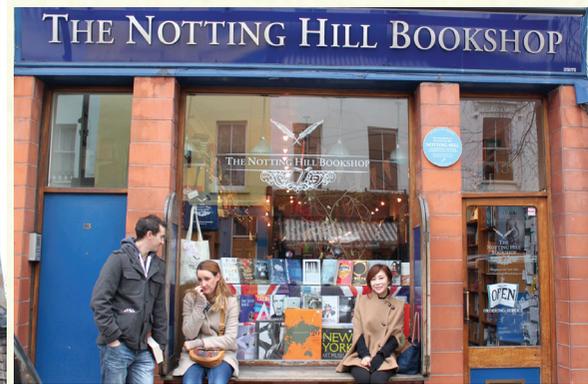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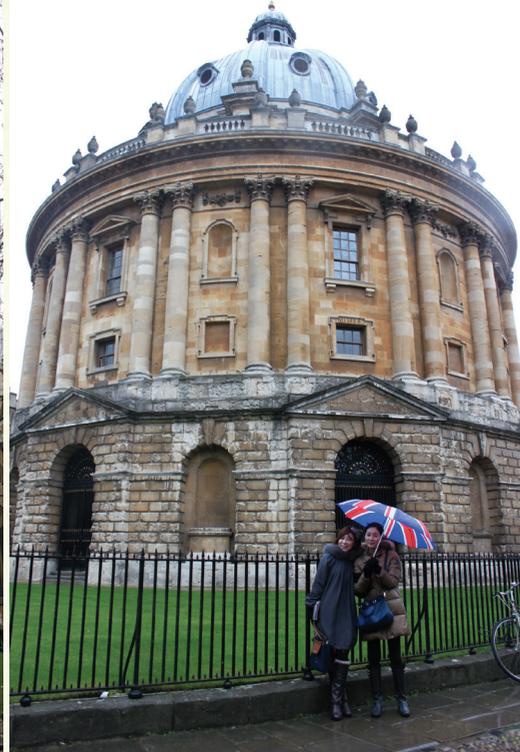
영국은 북대서양과 북해 사이에 있으며 대륙과 떨어진 섬나라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4개의 독립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잉글랜드는 960여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세계문화유산 21곳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 도시인 런던이 위치해 있다. 런던은 귀족적 고풍과 현대적 활기가 공존하는 도시로 이번 휴가의 목적지이기도 하다.

런던에서는 세계 최대 인류 문화사를 전시해 놓은 대영박물관, 영국 왕실 행사가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버킹엄 궁전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한 국회의사당과 런던 아이, 빅벤을 빼놓을 수 없다.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인 타워브리지도 볼거리이다.

2012년 마지막 날, 아주 운이 좋게 타워브리지가 열리는 광경도 보았고(영국에 사는 친구도 5년 동안 직접 보지 못했는데!), 템스 강 빅벤 앞 2만 5천여 명의 사람들 틈에서 '5.4.3.2.1' 카운트다운도 외치며 최고의 불꽃놀이와 함께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추억도 만들었다.





여행, 남는 것은 사진 뿐! 돌아와서 여행 사진을 보면 그때의 추억이 그대로 살아나 그리움은 억제할 수 없이 커져 버린다. 여행의 기억은 '좋은 일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추억으로 만들고, 힘들고 피곤했던 일은 희미하게 사라지게 해 좋은 추억'으로 만든다.

이런 추억을 남길 수 있었기에 런던은 정말 매력적인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여기서 명불허전 영국 날씨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날씨 중에 바람이 안 불고 비가 오지 않으며 춥지 않은 날은, 1년 중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로 오직 3개월밖에 안된다고 한다. 1년에 200일 이상 비가 오는 나라! 특히 영국의 겨울은 흐리고 째뽀드드한 날씨와 오후 4시만 되면 해가 저서 어둑어둑해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런던의 겨울 평균 기온은 영상 4.1도로 위도가 비슷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다. 하지만 날씨가 습하기 때문에 뼈 속까지 시린 추위가 만만치 않다.

런던에 머물렀던 일주일 중 화창한 날은 딱 하루뿐이었다. 영국에 있었던 다섯 번의 겨울동안 우울증에

안 걸린 적이 없다는 친구, 그리고 햇빛을 보지 못해 구루병에 걸렸다는 친구의 사춘 이야기가 실감났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해라도 나는 날이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잔디밭으로 뛰쳐나와 '태양 전지 충전하듯' 일광욕을 즐긴다고 한다.

여행을 갔었던 1월 첫 주, 서울은 영하 16.4도라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다. 그러나 아무리 강추위라 해도 겨울 하늘 아래 쨍하게 내리찍는 햇살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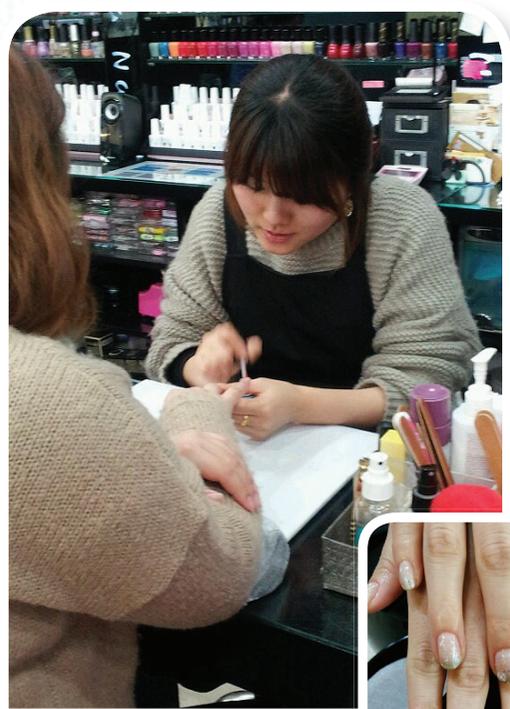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유리알처럼 투명한 햇살이 창밖으로 쏟아지고 있다. 다시 한 번 보송보송한 햇살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Nail의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문정은 / 클라라네일



날씨 영향을 받는 직업들이 참 많다. 내 직업인 ‘네일아티스트’도 그런 직업 중에 하나인데, 보통 네일숍이라고 하면 단순히 손톱에 색을 칠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물어뜯은 손톱이나 파고드는 발톱의 교정, 그리고 핸드 스크럽과 발 각질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바로 네일숍이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엔 사람들이 여름에 비해 발 관리를 잘 받지 않는 편인데, 발 관리는 색을 굳이 칠하지 않더라도 굳은살과 각질제거를 위해서 해주는 게 좋다. 또한 겨울철은 건조하고 찬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손이 쉽게 트고 각질도 잘 일어난다. 그래서 손이 건조하며 찾아오는 고객님들이 많은데, 핸드크림을 자주 바르라고 해도 소용없다고 하신다. 특히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님들, 아기 돌보시는 어머님들, 또는 병원이나 은행 등 손을 자주 이용하는 일이 많은 분들이 손을 자주 씻다보니 일일이 핸드크림은 잘 안 바르게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눈가 다음으로 약한 피부가 바로 손이다. 요즘 좋다고 하는 고가의 핸드크림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 아이크림에 들어가는 성분들과 겹치는 것도 무척 많다.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성분들도 들어있다. 얼굴은 성형을 하거나 세심한 피부 관리 등으로 동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손은 보톡스를 따로 맞을 수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더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손이야말로 나이를 속일 수 없는 부위인 것이다.



손이 거칠어서 남자친구랑 손잡기 민망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스크럽 관리가 꼭 필요하다. 얼굴도 각질제거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수분크림을 발라도 흡수가 안 되고 화장도 잘 안 되는 것처럼, 손도 각질제거가 안되면 핸드크림이 각질층에만 머물러서 아무리 덧발라도 계속 건조할 수밖에 없다.

일단 스크럽 제품으로 손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물때와 각질들을 제거하고 핸드크림을 발라주면 촉촉한 손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에 부쩍 손톱 끝이 부러져서 다시 손질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건조하고 추운 날엔 특히 손톱영양제를 챙겨 발라서 손톱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다.

날씨가 추우니 네일 드라이기로 말릴 때, 손이 시리다고 따뜻한 바람으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다. 안타깝게도 컬러는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면 색이 갈라지기 쉽기 때문에 꼭 찬바람으로 말려야 한다. 비가 오는 날엔 습한 날씨로 인해 애써 바른 컬러가 잘 안 말라서 손톱이 찌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오는 날은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요즘같이 건조하고 추운날씨에는 네일 드라이기로 오래 말리지 않아도, 여름 장마철처럼 습하고 눅눅한

날씨보단 컬러가 훨씬 빨리 잘 말라서 좋다.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 '아! 오늘은 컬러를 좀 더 오래 말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눈이 온다고 하면 '오늘은 눈꽃아트 재료를 좀 더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예상하게 된다.

또한 몇 년 만의 한파라는 예보가 나오는 날엔 '오늘은 고객님이 정말 없겠구나. 일찍 퇴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저녁 약속을 잡곤 한다. 아무래도 손톱에 컬러를 바른 날은 장갑을 낄 수가 없기 때문에, 추운 날 매출이 툭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해 보이는 색이나 어두운 색을 찾는 분들이 많다. 겨울은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해 우울해지기 쉬운 계절이니, 너무 어두운 색만 바르기보다 포인트로 한 두 손가락은 펄을 넣어 바르는 것도 기분전환에 좋을 것 같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발 관리도 자주 받고 네일아트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비록 몸은 힘들어도 시간가는지 모르게 신나게 일하게 된다. 어서 이 추운 겨울이 지나 매출도 쑥쑥 오르는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



두 얼굴의 국가기상위성센터



김난아 / 위성기획과

*“안녕하세요. 2학년 영어 수업을 맡은 김난아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잘 지내봐요!”*

작년 3월, 기대와 설렘을 안고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 벌써 해가 바뀌어 2013년이 되었다. 처음 학생들 앞에 섰을 땐 과연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스킬과 노하우가 생겼다.

국가기상위성센터는 2010년 6월부터 광혜원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 영어와 수학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싶거나 더 배우고 싶은 열의 있는 학생들이 참석하는 수업이다. 처음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자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서울이나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북 진천인 이곳이 상대적으로 사교육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이었다.

위성센터의 공부방 운영은 신문사에 기고돼 지역사회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홍보하는 데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1년 하반기부터 충청북도 교육청에 교육기부 거점센터로 등록되기도 했다. 나도 교육 혜택이 적은 학생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인적자원을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를 듣고, 함께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 현재 14명 정도 되는 위성센터 직원들이 각 학년의 영어와 수학을 분담해 2시간씩 가르치고 있다. 이 중에는 석·박사이상의 연구원들도 있고, 예전에 강단에 서 본 직원들도 있다. 나도 전에 잠깐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하는 수업이다 보니 처음에 느꼈던 그 기분 좋은 긴장감을 새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 난 낮에는 위성센터 연구원이지만, 저녁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두 얼굴’의 모습을 지니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공부방 운영이 본보기가 돼, 나처럼 ‘투 잡’을 갖는 분들이 많아져 교육 혜택이 적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됐으면 좋겠다.



문득 첫 수업을 했던 때가 생각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7년 만에 들어간 교실이었다. ‘학교 교실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 학생들을 보며 ‘나도 저때는 저랬었는데’라는 생각도 했었다. 학교는 내가 다녔을 때와 변함이 없었지만, 칠판이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점과 내가 학생이 아닌 성인이 돼 교탁에 서 있다는 점은 달랐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모두 6명. 소수지만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어 좋다. 간혹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장난으로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는지 참 재밌는 경우가 많다. 덕분에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트렌드나 단어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그리고 같이 있으니 나도 뭔가 다시 십대로 돌아간 기분도 들게 한다.



그렇게 딱딱한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닌 언니, 누나와 동생의 관계로 지내던 작년 5월 15일,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들고 위성센터를 찾아왔다. 공부를 가르치는 모든 센터 직원들이 놀라워했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견함도 느꼈다. 더욱이 아이들은 직접 편지까지 써 오기도 했다. 전혀 예상 못했던 일기에 감동이 더했다. ‘내가 저 학생들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고마운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해서 잘 가르쳐야겠다!’라는 다짐이 들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훌쩍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어려운 점이나 고민이 있으면 내게 털어놓기도 한다. 덕분에 상담선생님도 된 셈이다. 여러 고민을 들어보면 대학이라는 틀, 그리고 서울과는 다른 교육환경의 부족, 성적만이 우선인 교육 현실에 대한 고민 등이다. 그렇게 아이들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나도 조금씩 커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 지난해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으라면, 이 공부방에 대한 추억을 빼놓을 수가 없다.

2013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내 제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고3이 되는데, 올해 꼭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도울 생각이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도 나는 다시 교탁에 서서 새로운 학생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게 될 것이다.

“사랑스러운 학생들과 우리 위성센터 선생님들, 올해에도 파이팅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보석 '터키'에 빠지다



최유미 / 제주청 예보과

'형제의 나라'면서 세계 3대 음식의 본고장인, 멀지만 마음만은 가까운 나라 터키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는데 유럽과 아시아,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 빚어낸 조화로운 나라로 유명하다. 터키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던 내가 여행을 위해 조금씩 알게 된 터키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나라였다.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780,580km²의 넓은 국토와 그 국토를 둘러싸고 있는 흑해, 그리고 에게해와 지중해! 게다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스탄불,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이 된 카파도키아 등 내가 터키에서 보고 느낀 감동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자 한다.

이스탄불에 처음 도착해 느낀 점은 '신비로움'이었다. 이스탄불의 유럽 쪽 구시가지에 관광명소들이 밀집해있는데, 그곳에 숙소를 잡은 난 무거운 짐을 들고

깡깡거리며 찾아가야 했다. 그러던 중 내 혼을 속 빼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소피아 성당과 블루모스크의 야경이었다. 꼭 신비스러운 빛이 나를 감싸는 것만 같은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겨울이었지만 마음까지 따뜻하게 했던 그 빛이 내가 처음 느낀 터키이자 내가 겪은 터키를 대변하는 빛이기도 했다. 터키는 그만큼이나 따뜻했는데, 날씨 역시 제주도의 겨울정도였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터키인들은 무척이나 관대했는데, 괜히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게 아닌듯했다.

1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 건축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던 소피아 성당, 이슬람 사원의 정수라는 블루모스크, 오스만 왕국 때 술탄들이 사용한 보석 등이 보관돼 있고 술탄의 여인들이 기거한 할렘이란 공간이 있는 톱카프 궁전, 6,000여개의 가게가 밀집돼있다는 아시아 최대의 시장 그랜드 바자르까지! 이스탄불은 구경거리들로 넘쳐났다.



그랜드 바자르는 요즘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처럼 지붕이 덮여있는데, 약 600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이라 한다. 시장 내에는 갖가지 생활소품과 물담배 용구, 휘황찬란한 색깔의 램프와 도자기, 액운을 몰아내는 청색의 터키석 등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물건들이 넘쳐나 시간가는 줄 모르게 구경했다. 시장 구경이라 하면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는데, 특히 고등어케밥을 잊을 수가 없다. 처음 빵 속에 고등어가 담긴 모습을 봤을 땐 의아했지만, 손으로 뜯어 빵과 함께 먹는 맛이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맛있었다.

‘블루 모스크(푸른 보석의 사원)’의 본이름은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인데, 전날 밤 야경으로 봤을 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였다. 전날 밤엔 신비로웠지만, 다음날 낮에 본 블루 모스크는 장엄하고 웅장한 느낌이 강했다. 블루모스크라는 명칭과 같이 안은 푸른 스테인 그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빛으로 신비로움을 자아냈다. 블루모스크와 바로 이웃해 있는 비잔틴 문화의 대표적 건축물인 성 소피아 성당도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다. 오스만 제국이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나서 여러 유물을 훼손했지만 성소피아 성당만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해 파괴하지 못했다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였다.

카파도키아는 화산폭발로 생성된 응회암이 오랜 시간 풍화와 침식을 거쳐 만들어진 곳인데, 눈으로 보기도 믿기 힘든 다양한 모양의 기암괴석을 볼 수 있었다. 마치 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풍경 때문에 SF영화 ‘스타워즈’의 촬영지로도 사용된 곳이다. 파사바 계곡에는 카파도키아의 상징인 버섯바위가 있는데 만화영화 ‘스머프’ 배경마을의 모티브가 됐다고도 한다. 또한 카파도키아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종교 활동을 한 곳이기도 했다. 이스탄불이 건축물과 사람들로 북적이고 휘황찬란한 도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면, 카파도키아는 자연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볼거리가 많았다. 이스탄불의



블루모스크

자연경관도 입을 못 다물 정도로 멋있었지만, 카파도키아가 내 기억 속에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추억되는 이유는 바로 터키인들 덕분이다.

카파도키아는 작은 시골마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광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버스를 타게 되면 그 안은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곤 했는데, 서로 의사소통은 잘 안됐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무척이나 반갑고 친숙하게 대해주었다. 또한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든 설명해주려고 꺽꺽대다가 결국은 따라오라며 자신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무척이나 친절han 터키인들이 많았다.

내가 여행을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터키가 내 기억 속에 크게 남아있는 건 아마도 이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고마웠고 따뜻했으며, 그들의 작은 행동과 작은 웃음이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요즘 난 누군가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터키를 추천한다. 정말 보석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터키에 빠져 그 향수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곳!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곳 터키에 빠져보시길 바란다.

기상청 시사회로 '더 임파서블'을 보다



김복희 / 지진정책과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집 근처에 영화관이 있어 매번 개봉하는 영화마다 빼놓지 않고 챙겨보는 내게 이번 영화 <더 임파서블>도 그 중에 하나였다. 특히 업무와 관련된 쓰나미를 다룬 영화이기에 개봉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운 좋게도 기상청 시사회이벤트가 생겨 개봉 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집 근처 영화관보다 더 큰 스크린을 통해 <더 임파서블>을 볼 수 있게 됐다.

<더 임파서블>은 2004년 12월 26일, 14개 국가에 22,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쓰나미를 소재로 한 재난영화다. 그 당시 지진감시과에서 국내외 지진발생 현황을 모니터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나로서는, 당일 근무자는 아니었지만 규모 9.1의 거대한 강진이 기록하는 지진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눈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진앙지인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와의 거리를 감안하고서라도, 그 엄청난 위력이 느껴지는 듯해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쓰나미의 발생원인은 인도와 호주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진원지에서 역단층의 수직운동이 발생해 단층면을 경계로 한쪽은 수면의 상승을, 반대쪽은 수면의 하강이 일어나 거대한 쓰나미를 유발하게 된 것이다.

많은 나라에 지진해일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했기에 우리나라도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주일 이상 긴장이 계속되면서 연속 비상근무와 대기상태였던 걸로 기억한다. 다행히 중국과 일본 등이 우리나라를 가리고 있어,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피해는 비켜갈 수 있었다.

〈더 임파서블〉은 한 가족이 태국으로 휴가를 갔다가 뜻하지 않게 쓰나미에 휘말리는 참변을 당하면서 기적과 같은 일을 겪게 되는 내용을 다뤘다. 쓰나미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영화인 것은 맞지만,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가족애와 인간애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화였다.

재난영화다 보니 스토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여자주인공처럼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 내가 처했다면, 과연 나도 그녀처럼 강하게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나의 가족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가족들이 서로를 찾으려는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에서 몽클한 감동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인상에 남는 부분은 주인공 가족보다는 그 옆에서 가족을 찾으려고 애쓰던 발을 절룩거리던 한 남자의 모습이였다. 그는 아내와 딸이 해변으로 놀러간다는 쪽지를 본 직후에, 쓰나미가 몰려와 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된 남자였다. “WE ARE AT THE BEACH”라고 쓰인 그 쪽지 뒤에, 애타게 찾는 가족의 이름을 적게 되는데... 홀로 남겨진 그 남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 한쪽이 계속 아파왔다.

영화 마지막 엔딩스크롤이 올라갈 땐,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들의 사진도 함께 나왔다. 알바레즈 벨론 가족은 처음엔 자신들의 이야기가 영화화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이 가족 역시 쓰나미를 겪었던 당시의 기억을 열심히 차단하고 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의 이야기에 감동한 제작진들이 꼭 이 스토리를 영화로 탄생시키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그 결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이겨낸 사람들의 감동적인 영화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 짜증을 낼까?’라는 헤민스님의 칼럼을 보았다. 정말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짜증을 더 내는 것일까? 너무 가까이 있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상대방은 똑같은데, 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됐다. 그리고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게 됐다.

혹시나 삶이 무료하게만 느껴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일을 일깨워주는 영화 〈더 임파서블〉을 꼭 추천해주고 싶다.



먼지로 맺어진 인연



김민주 / 기상콜센터

“안녕하십니까. 기상콜센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은평구 응암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00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어느 할아버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신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항상 똑같은 대화가 계속되다 보니, 어느새 목소리만 들어도 단번에 그분의 기분까지 알아챌 수 있는 ‘단골 고객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덥고 습하던 때였다. 상담 후반에 “할아버님,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라는 말씀으로 상담을 마치려 했다. 할아버님은 고맙다며 잠시 시간 괜찮겠냐고 물으셨다. 마침 좀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할아버님은 몇 년 전엔가 집을 새로 단장하셨다고 하셨다. 손수 건물 외벽을 장식할 돌도 고르시고 정원도 예쁘게 꾸미시고, 커다란 감나무 두 그루가 여름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예쁜 집이라고 하셨다. 언제 시간나면 꼭 놀러 오라시며, 동네에 오면 금방 댁을 알아 볼 수 있을 거라고 자랑삼아 말씀도 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아담한 집을 꾸미셨는데, 몸이 안 좋아 큰 수술을 받은 후

엔 거의 밖을 못 나오시는 듯 했다. 먼지에 많이 민감해서서 문도 잘 열어놓지 못한다 하시고... 그래서 할머니님 과도 종종 다투신다 하셨다. 더운 날 문을 꼭꼭 닫아 놓고 지내자니, 답답하신 할머니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언뜻 서글픔이 묻어나와 저도 괜스레 맘이 뭉클해졌다.

넋두리 들어줘서 고맙다하시며 상담은 종료됐다. 이후에도 여전히 간단한 인사말과 문의, 그리고 단답형 답변으로 할아버님과 저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문득, ‘머칠씩 할아버님과 통화가 안 되었구나’ 싶은 날엔 궁금해져서 옆 직원들에게 묻게 된다.

“요즘 응암동 할아버님과 통화하신 분 있으신가요?”

“어, 아까도 미세먼지 문의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듣고 나면 ‘아, 요즘도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하며 저도 모르게 안도하게 된다. 그리고 할아버님의 건강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도 드린다.

서울 하늘이 늘 푸르렀으면 좋겠다. 더불어 할아버님도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할아버님과 기상콜센터의 인연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다.

“할아버님, 오늘의 공기는 괜찮지요?
할머니님 생각도 하셔서 가끔 환기도 해주세요~”



운전면허증 획득은 내 손안에 있소이다!



이윤진 / 기상콜센터

많은 양의 비가 예보가 된 날이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지역과 시점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을 절약하며 간결하고 명료하게 고객님의 원하는 강수량과 강수시간대를 열심히 안내하던 그날... 비 예보로 인한 끊임없는 문의전화가가 계속된 그 밤에 ‘뚜루루루’ 한통의 벨이 울렸다. 어느 때와 똑같이 정성스러운 인사로 시작하는 고객님의과의 만남이었다. 수화기너머 들리는 50대의 한 중년 여성분이 조심스레 말씀하셨다.

“내일 서울 강서구에 비가 많이 내릴까요?”

재빨리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콜센터 전용시스템을 통해 지역을 탐색한 후, 오전·오후 예상 강수량을 안내해드렸다. 그런데 갑자기 고객님의 목소리가 회색빛으로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그럼 오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건가요?”

순간 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신 건가? 아님 나의 상담이 맘에 들지 않으셨나?’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그때 고객님의 한마디가 들렸다.

“휴~ 그럼, 운전면허시험을 연기해야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고객님의 목소리에 ‘아하~ 운전면허시험을 보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나 또한 12년 전,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 도로연수시험을 본 기억이 있다. 덜덜 떨리는 상황에서 와이퍼는 설 새 없이 춤을 추고... 정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야말로 직감에만 의존한 채 시험을 봤던 때였다.

“시험 잘 보세요!”

다행히 그날 오전에는 비의 강도가 그리 강한 편이 아니었다. 그날 그 고객님의 제 상담을 받고 시험을 잘 보셨는지 궁금해진다. 운전면허증을 두 손에 꼭 쥐게 되셨다면, 아마도 내가 보낸 응원도 조금은 한몫했을 것 같다. ^^

세계기상기구 고위직 진출! 아시아·남서태평양지역 기상기술발전 견인



박정규 / 기획조정관

2012년 3월, 세계기상기구(WMO¹⁾) 아시아·남서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 국장에 공모하여 80여명의 후보자중 일본, 중국과 함께 네 명으로 좁혀진 Short List에 들어 WMO 사무총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일본과 중국의 두 후보 역시 국제 무대에서 높이 인정받고 있던 터라 결과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 12월, 드디어 내가 최종 선발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이번 WMO 국장직 진출은 나의 개인적인 성취뿐 아니라, 기상청이 설립된 1948년 이래 최초로 이룬 성과여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껏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보니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빌려, 주 제네바 대표부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WMO 아태지역국장은 전체 190개 회원국의 30%에 해당하는 58개 회원국이 속한 아태지역의 각종 기상·기후분야 협력 사업을 총괄 조정·집행 감독하게 된다. 특히 아태지역은 한국, 일본 등 선진국과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많은 최빈국이 공존하여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크고 중국, 인도 등 세계 최대 인구 국가가 포함돼 있다. 또한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등 세계 최고의 높은 산들, 다우지역과 함께 동서로 놓인 사막지역



WMO / 스위스 제네바

WMO의 6개 분할 지역 중 아시아(RA II)와 남서태평양(RA V) 지역 담당 (전체 190개 회원국의 30%인 58개국)



1) 세계기상기구(WMO) : 기상·기후 분야의 UN 산하 전문기구로 1951년 설립. 기상관측, 기상기후서비스, 재해위험경감, 기상연구 및 교육 등을 위한 범세계적인 협력관계 및 국제적인 조정 도모



現 WMO 아태국장과 차기 WMO 아태국장



WMO 지역활동개발국장, 차기 RAI 의장 · 부의장, 차기 WMO 아태국장

이 공존하는 다양한 기후환경과 종교와 문화가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대형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아태지역국장의 역할과 임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국장의 임무를 간단히 말하자면, 지역의 현황과 기상기후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점 협력 및 지원 분야를 파악하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행·조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상기술 선진국이라도 홀로 기상예보는 불가능하다. 개도국을 포함한 전 지구 기상관측자료 없이는 슈퍼컴퓨터 등의 첨단장비도 무용지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국의 기상자료를 품질이 저하되면 기상예보 정확도도 함께 낮아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것(同行同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도 물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물과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인으로서 무엇보다 관심 있는 것은 ‘기상 분야 남북협력’이다. 북한의 기상관측시설이 날로 낙후되고 자료의 질이 저하되면서, 주변국가의 기상예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낮은 예측기술로 기상재해가 빈발해 농업 생산성까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기상기술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모든 과제 수행을 위해 유엔 지역기구, 세계은행 등 파트너 기구들과의 협력 추진 등으로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 유치 확정된 녹색기후기금(GCF²⁾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³⁾의 녹색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의 기후 변화대응·녹색성장의 메카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WMO 진출을 계기로 국제기구 내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기상분야 국제활동을 선도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하리라 다짐해 본다. 또한 이번 임명을 시작으로, 그간 국제무대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 기상전문 인력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규 기획조정관 약력

- 1955년 서울 출생
- 주요 학력
연세대학교 기상학 이학사 및 이학석사
미국 북일리노이주립대 기상학 석사
미국 미주리주립대 대기과학 박사
- 주요 경력
'87. ~ '96. 미국 NASA Goddard 대기연구소 선임연구원
(미 매릴랜드주립대 기상학과 연구조교수 겸임)
'96.12. 기상청 4급 특채
'05.9. ~ '08.4. APEC 기후센터(APCC) 설립 초대 사무총장
'09.3. ~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기획조정관

2) 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GCF)
3)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통섭과 융합의 산실 '행정자료실'



이재원 / 기상자원과장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지식이 유일한 생산수단이 되는 사회를 지식사회라 하고, 이미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경영혁명의 형태로 이 사회가 도래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 없으면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생존할 수 없다. 지식은 책으로 전파되며 도서관은 책의 보고(寶庫)이다.

기상청 행정자료실은 우리나라 유일의 기상도서관이다.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기상업무 종사자와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현재 기상청과 소속기관의 연구보고서와 정기간행물을 비롯하여 대기과학 전문서적, 학위논문, 인문학 도서 등 총 4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보고서, 국제회의보고서 등 원문 1,000여건을 PDF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6,000여권의 세계기상기구(WMO) 발간자료와 1,900년대 초의 '기상월보' 같은 역사적인 기상기록 자료도 보관되고 있다.



행정자료실을 운영하는 기상자원과는 기상지식정보가 전 조직에 수액처럼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작년엔 시스템을 개선했다. 모든 장서에 RFID*1) Tag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무인대출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자도서관 (<http://book.kma.go.kr>)에서 각종 발간자료를 등록하고 원본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공간 제약 없이 모바일로도 독서가 가능한 전자책 700여권과 5,000여권의 도서요약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전자도서관은 직원출입증의 고유번호 다섯 자리(본청)와 그룹웨어 아이디(지방청)로 로그인된다. 한편, 1층 현관 옆에 아름관을 만들어 기상청 방문자들이나 직원들이 부담 없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이처럼 독서문화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개선과 함께, 문화적인 접근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도서기증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독서클럽 운영이다. 도서기증운동은 2008년부터 매년 펼쳐져 행정자료실 장서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후대에 남을 기상역사 기록물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직원과 전직 기상인, 그리고 학계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80여명이 참여하여 3,200여권의 장서가 기증되었다. 특히 삼양미디어(대표 신재석)에서는 이일수 차장을 통하여 2008년부터 4회에 걸쳐 2,500권의 교양도서를 기증했다. 이 책들은 지방청을 비롯한 소속기관까지 두루 배포되어 전 직원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다.

독서모임은 전자도서관 개선으로 조성된 독서환경을 기반으로 금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기상청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록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서모임은 문학,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여러 관심분야에서 만들어져 생각과 정보를 나누고 다양한 문화를 함께 누리는 장이 될 것이다. 기상자원과는 독서모임 활성화를 위해 전자도서관에 독서커뮤니티를 개설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독서모임을 중심으로 저자와의 대화를 비롯한 문화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세계 경제활동의 80% 이상이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GDP를 1,000조원으로 볼 때 400조원 정도가 기상에 민감한 분야이다. 따라서 기상은 이미 기상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게 되었다. 사회경제의 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행정자료실이 통섭과 융합의 산실이 되고, 독서문화 활성화로 더 큰 기상청의 꿈이 잉태되기를 염원한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자동인식시스템) 자료에 대한 고유한 식별기호나 정보를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태그에 저장하고, 필요시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를 일정한 거리 내에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



연애 '만' 못하는 당신을 위한 싱글계몽 프로젝트
2030 솔로탈출

Valentine Day 초콜릿의 비극

흔히 요즘 20~30대를 '삼포세대'라고 한다. 나 역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흔한 잉여답게 **취업준비생으로 3년**을 보냈다. 어쩔 그 많은 회사 중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그리도 없는 건지, 지원하는 족족 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젠 취업까지 포기해야 하나...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야 **드디어 듣게 된 합격 소식!** 소규모 회사지만, 어찌나 기쁘던지 엄마와 열싸안으며 눈물도 좀 흘렸다. 꼭 효도시켜드리겠다며 큰 소리도 뽕뽕 치면서,



그런데 입사 6개월쯤 됐을 때, 난 과히 **폭발 직전**이 되어 있었다. 정수리엔 눈에 띄게 흰머리가 늘어났고, 탈모와 만성피로,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노화까지! 어느 순간 내 얼굴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도 얼핏 보일 정도였다.

그렇게 원했던 입사였는데, 어쩌다 이 모양이 됐냐고?

뭐, 사회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다는 건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일 야근과 월화수목금금금의 나날도 굳건히 버텨내려 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머리 독수리!** 날 못 잡아먹어 안달 난 그 김부장 때문이다.



우린 처음부터 너무 안 맞았다. 그가 내게 처음으로 시킨 업무가 바로, 담배 사오라는 거였으니까. 내가 너무 고분고분해서였을까? 커피 타오기 같은 건 그저 애교수준일 뿐. 세탁물 찾아오기, 공과금납부하기, 지인들에게 연하장 쓰기, 음주 시 대리운전하기, 근무 중 주유와 세차하러 가기 등등! 난 그의 알고 싶지도 않은 사적인 부분들까지 속속들이 알고만 너무도 **'친밀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

그는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지원씨, 커피 좀 부탁해~
또 부탁해~ 또, 또, 부탁해~~ 계속 계속 부탁해!"

정말 그 능글맞은 얼굴에다가 사표를 던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학자금 대출은 아직도 잔뜩 쌓여있고, 내 뒷바라지 하느라 그간 고생하신 엄마만 생각하면... 어흑~ 치사해도, 비참해도, 더러워도! **참고 또 참고 또 또 참는!** 수양의 나날이 계속되어야만 했다. 그러니 내가 급 노안이 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뭐, 나도 나름의 복수를 하긴 했다. 침 뱉은 커피 주기? 번기물에 찻숯 헹구기? 그런 건 차마 간이 부들거려서 하지 못했다. 난 예의바른 **트리플 A형**이니까. 대신, 김부장 자리로 몇 번 전화해 말없이 끊는 건 해봤다. 그뿐 아니라, 그의 유선전화기 선을 몰래 꼬아놓기도 했다. 또한 과자부스

러기를 그의 키보드에 살짝 흩뿌려놓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나도, 밟으면 꿈틀은 하니깐
근데 뭐... 그런 쾌감은 딱 그 순간뿐. 어쩐지 김부장이 내 속셈을 눈치 챈 것만 같아 더 조마조마해졌다. 이젠 뭐, 심장이 콩알만 해져서 복수건 뭐건 간에 체질에 맞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결국 그 문제의 날이 오고야 말았다. **바로 밸런타인데이**. 먹고 살기 바빠 연애감정 따윈 잊고 산 내게, 한 여자선배가 초콜릿 사러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회사 남자직원들에게 줄 **의리초콜릿**을 나도 살 거 아니냐면서. 아차, 싫었다. 나만 썩 빠졌다면 그 트집쟁이 김부장이 엄청나게 들들 볶았을 터였다.

때마침 그에게 딱 어울릴만한 초콜릿이 생각났다. 곧바로 재료들을 사서 온 정성을 들여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손재주는 타고났다 보니 금세 근사한 초콜릿이 완성됐다. 그리고 찾아온 밸런타인데이, 김부장은 예쁘게 포장까지 한 내 수제초콜릿을 받고 무척 기뻐했다. '후후후' 난 초콜릿을 먹는 그를 보며 **희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었다.
김부장의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원씨, 참 이상하네?
왜 우리 남편에게만 직접 만든 걸 줬어?"
"네? 제 바로 위 상사다 보니..."
"상사가 어디 한둘이야?
지원씨, **아직 혼자라며?**
우리 남편하고 뭘 일 있는 거 아냐?"
"네엣? 그럴 리가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도 지원씨가 데려다주고, 우리 애 숙제도 대신해주고 그랬다면?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어?"



헉! 사무실에 나 **혼자만 싱글**이다 보니, 그동안 그녀는 날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다. 통화가 계속되면서, 어느새 난 유부남 상사를 흠모하는 가정파탄자가 돼버리고 있었다. 부글부글.....

이건 꿈틀 정도가 아니라, 완전 **맞장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결국, 인내의 한계를 느낀 난 빵 터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왜 지원씨가 올 남편에게만 이렇게 유독 특별한 거냐고?"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잖아요!"

덧붙인 말이 더 압권이었다.

"그 초콜릿 안에 옛 들어있거든요?"

옛 드시라고 그랬다고요, 왜!"

사무실에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난, 초콜릿 한 번 줬다가 끝내 직장도 박차고 나온 '간 큰 여자'가 되고 말았다.

"싱글여성분, 함부로 **초콜릿 남발**하지 마세요. 저처럼 험한 꼴 당할 수도 있으니깐요!"



기후변화 이해로 함께 소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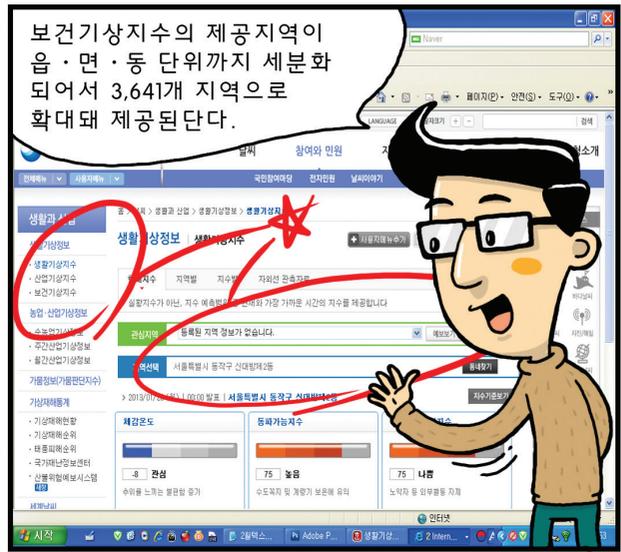


기상청에서는 지역별로 기후변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정보 제공과 더불어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는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이해확산과 지역에서 추진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보기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 > 열린마당 > 홍보자료 >
기후변화 홍보물



영화 '더 임파서블' 특별시사회(1.15)

지진해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상청 대강당에서 영화 속 쓰나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난영화 '더 임파서블'을 관람했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기상인 신년인사회(1.4)

전직기상인과 유관기관·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올해에도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기상캐스터 오찬간담회(1.9)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기상청장, 기상캐스터 등이 모여 에너지절약운동 동참과 겨울철 기상정보 제공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제6차 한중일 지진협력 청장회의(1.8~13)

한·중·일 3국간의 지진재해경감 및 기술발전 협력을 위해, 이 일수 차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협력 회의에 참석했다.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 보고회(1.15)

기상기후산업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기상산업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R&D 투자확대 근거와 중점 진흥분야 발굴에 활용하기로 했다.

수도선부 토론회 개최

물이 불어나면 큰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수도선부(水到船浮)'의 의미처럼,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기상청의 미래를 위한 신년토론회를 전국 지방청에서 열었다.



평창스페셜올림픽 지원(1.26~2.5)

평창스페셜올림픽의 성공적인 경기운영을 위해, 경기장과 주변지역의 맞춤형 상세기상정보를 제공했다.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운 Quiz! 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달 퀴즈

1. 기상콜센터 전화번호는?

- ① 123 ② 121 ③ 131 ④ 141

2. 국가기상위성센터 직원들이 저녁에 하는 일은?

- ① 방송출연 ② 청소년 공부방 운영 ③ 장기자랑 ④ 야식배달

3. 기상청이 최초로 고위직에 진출한 국제기구 이름은?

- ① WOW ② WBC ③ WOM ④ WMO

지난 달 퀴즈 정답 :

1. ① 꽃지알
2. ② 모자
3. ① 그래픽캐스트

지난 달 퀴즈 정답자 :

1. 김은왕(서울) 2. 황은영(부산)
3. 김도준(경기) 4. 이태규(대구)
5. 김은미(강원)



퀴즈 정답은

2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사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인사발령

내용	일 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전보	1.21	예보국	예보정책과	부이사관(과장)	이재병
			총괄예보관	기술서기관(과장)	전준모
		기상청(교육훈련 파견)		부이사관	유희동
전보	2.4	기상청(교육훈련 파견)		일반직고위공무원	육명렬
				기상연구관	최병철
		운영지원과		방송통신사무관	홍경화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방송통신사무관	박준천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기상연구관	정성래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기상연구관	차은정		
승진	2.4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대	기상사무관	서태건

이제 바다에 나갈 땐, 우리나라 해양기상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내가 원하는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스마트폰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폰이 없어도
일반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무선 Fax 서비스는 물론 무선 Fax가 없는
소형 선박에서도 음성방송으로 편리하게~
131 ARS 전화와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쉽게~
기상청 해양기상서비스는 여러분 곁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스마트 모바일 웹

일기도, 위성영상 등
다양한 해상기상정보
제공



홈페이지 바다날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기상서비스
제공



휴대폰 문자서비스

원하는 해양기상서비스
문자로 제공



해양기상방송 (We-Fax)

무선통신 방식으로
해양기상정보 제공



해양기상 음성방송

고가의 We-Fax 수신기
없는 소형선박 대상
(SSB 사용)



연근해 선박기상정보

매월 말 다음달의
해양기상서비스 제공



131 ARS 서비스

다이얼 부이 항해기상정보



30초의 기적

30초 후 당신은

아이의 얼굴을 만져도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줄어듭니다.

당신이 손을 씻는 단, 30초 동안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제거됩니다.

